

# 일부 대학생의 구강건강신념에 대한 융합연구

임선아  
송원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 Convergent Research on Oral Health Beliefs in Some University Students

Sun-A Lim  
Professo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ongwon University

요 약 대학생의 구강건강신념에 대한 융합연구로 G지역 S대학교 융복합 과목을 수강한 학생을 대상으로 2018년 3월 26일부터 6월 11일까지 설문지를 배포하여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동의한 학생을 168명을 최종분석하였다. 구강건강신념에서 유의성이 3.99점으로 가장 높았고, 심각성이 2.0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구강건강증진행위와 구강건강신념간의 차이에서 치석제거경험은 감수성( $p<0.05$ ), 유의성( $p<0.001$ ), 중요성( $p<0.05$ )에서 치과방문은 유의성( $p<0.05$ )과 중요성( $p<0.05$ )에서, 구강관리용품 사용은 중요성( $p<0.05$ )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구강건강의 신념이 매우 중요하며, 올바른 구강건강신념을 갖을 수 있도록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을 배워나가고 행동과 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학내에서 구강보건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융합, 학생, 구강건강, 신념, 구강건강증진행위

**Abstract** The study was implemented the convergence research on oral health beliefs G area S university convergence course. The final analysis of 168 students agreed to research purpose and method was conducted from March 26 to June 11, 2018. The benefits was highest at 3.99 points, and the severity was lowest at 2.01 about oral health belief. The t-test and ANOVA outcome about oral health improvement behavior and oral health belief were dental clinic visit was benefits and importance, scaling experience was sensitivity, benefits and importance, use of auxiliary oral care products was importance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imported oral health beliefs for oral health improve and a variety of programs for oral health education need to be developed within university to learn knowledge of oral health behavior and attitude changed for correct oral health beliefs.

**Key Words** : Convergence, Students, Oral health, Belief, Oral health improvement behavior

### 1. 서론

대학생은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시기로 자신의 건강에 대한 스스로 책임감이 따르기도 하지만 관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음주나 흡연 등의 노출로 인하여 구강관리를 소홀하기도 한다[1]. 오늘날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건강은 우리 삶의 기본이 되었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

은 매우 증대되고 있다[2]. 구강건강과 전신건강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건강하지 않을 경우 삶의 질이 저하되는데 연구결과들이 많이 있다[3].

건강을 증진·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건강에 대한 관심과 인식, 태도 및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4].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구강건강에 대한 예방이 매우 중요하며, 구강병 예방을 위한 개인의 구강건강관심도와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Songwon University Research Fund in 2018.

\*Corresponding Author : Sun-A Lim(givesuna@nate.com)

Received September 12, 2018

Accepted October 20, 2018

Revised October 4, 2018

Published October 31, 2018

스스로 자가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5]. 구강건강증진행위는 자기 자신의 구강건강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올바른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을 말하며, 대학생들이 구강건강상태를 인식하여 구강건강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고 의료서비스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6]. 구강건강신념은 개개인의 태도와 신념을 이해하는 사회심리학적인 과정의 평가항목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사용하고 있다[7]. 구강건강신념모형은 건강신념 모형을 구강병 예방에 적용하였으며,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단계에서 예방하는 등 그에 따른 행위와 관련된 모든 요인을 설명하는 것이다[8]. 개인의 심리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하며, 태도와 신념은 행동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올바른 구강건강행위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9].

건강신념모형을 감수성, 중요성, 심각성, 유익성, 장애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사회학적인 요인과 경제적인 요인 등의 영향으로 감수성과 심각성이 높아질 경우에는 질병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하였다[10]. 구강질환은 만성적인 질환이지만 전신질환에 비해 생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으로 보아 구강질환을 소홀히 여기고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11]. 대학생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사업이나 구강보건교육이 활발히 운영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보아 학생들에게 구강보건교육관리를 위한 동기부여와 필요성이 절실한 상태이다[12].

구강건강신념모형을 이용하여 모친[8], 청소년[13], 치위생과 학생[2,14], 임산부[15] 등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신념과 구강보건행태에 관련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는 다소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S대학교에서는 핵심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5개학과로 구성된 융복합 교과목이 개설이 되어 1,2학년 학생들에게 팀티칭의 융합교육을 실시하여 대학생들의 구강보건교육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자신의 구강상태를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전공이 아닌 일반 대학생들에게 구강보건교육을 통하여 구강건강의 신념의 변화를 갖게하고 더 나아가 성인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태도의 변화와 자신감을 향상할 수 있는게기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생동안 살아갈때에 구강건강을 예방하고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구강보건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제시하기 위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건

강신념과 구강건강증진행위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강건강신념에 대한 융합연구를 실시하였다.

## 2. 연구대상 및 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G지역에 소재한 S대학교 융복합 과목을 수강한 5개학과(뷰티예술학과, 사회체육학과, 치위생학과, 식품영양학과, 재활보건관리학과)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18년 3월 26일부터 6월 11일까지 실시하였다. 융복합 수업 후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동의한 학생에게 직접 서명 날인 후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표본수는 G\*Power 3.1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alpha=0.05$ , 효과의 크기는 중간정도  $=0.25$ ,  $power=0.95$ 로 산출한 결과 필요한 표본수는 146명이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1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응답이 불성실한 7부를 제외한 168부(96%)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 2.2 연구도구 및 방법

#### 2.2.1 연구도구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신념과 구강건강증진행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 4문항, 구강건강증진행위(치석제거 경험, 정기적 치과방문, 칫솔질, 구강관리용품) 4문항, 구강건강신념은 감수성 6문항, 심각성 6문항, 유익성 6문항, 중요성 6문항, 장애성 6문항으로 총 3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강건강신념은 Kegeles[16]에 의해 제시된 모형을 기본으로 개발된 선행연구[2,8,14]의 설문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구강건강신념은 Likert 5점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 경우 구강건강신념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고, 장애성의 경우 역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점수가 낮을 경우 구강건강신념이 높다고 보았다. 구강건강신념의 Chronbach's  $\alpha$ 는 0.687로 나타났다.

#### 2.2.2 통계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통계분석용 소프트웨어 SPSS(SPSS 18.0,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강건강신념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증진행위는

Chi-square test,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신념과 구강건강증진행위와 구강건강신념은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및 Scheffé test 사후검정법을 시행하였다. 구강건강증진행위와 구강건강신념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test로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구강건강신념 수준

Table 1과 같이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신념은 총 2.99점이었으며, 유익성이 3.99점으로 가장 높았고, 감수성 2.53점, 중요성 3.13점, 장애성 3.32점이었고, 심각성이

2.0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3.2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증진행위

Table 2와 같이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증진행위에서는 성별에서 치석제거경험( $p<0.05$ ), 정기적 치과방문( $p<0.001$ ), 구강관리용품( $p<0.05$ ) 사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학년에서는 구강관리용품 사용( $p<0.05$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흡연에서는 정기적인 치과방문( $p<0.05$ ), 치석제거경험( $p<0.05$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1. Subjective level oral health beliefs

(N=168)

Variable	Chronbach's $\alpha$	M $\pm$ SD	Minimum value	Maximum value
Susceptibility	0.764	2.53 $\pm$ 0.71	1.00	4.00
Seriousness	0.753	2.01 $\pm$ 0.66	1.00	3.50
Benefit	0.803	3.99 $\pm$ 0.57	2.83	5.00
Sallience	0.667	3.13 $\pm$ 0.52	1.00	5.00
Barrier	0.765	3.32 $\pm$ 0.74	1.83	5.00
Total	0.687	2.99 $\pm$ 0.30	2.20	3.60

Table 2. The difference of subjective oral health improvement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Scaling experience		Regular dental visit		Tooth brushing		Use of auxiliary oral care products	
			Yes	No	Yes	No	Yes	No	Yes	No
Gender	Male	35(20.8)	7(20.0)	28(80.0)	13(37.1)	22(62.9)	32(91.4)	3(8.6)	11(31.4)	24(68.6)
	Female	133(79.2)	61(45.9)	72(54.1)	93(69.9)	40(30.1)	114(85.7)	19(14.3)	74(55.6)	59(44.4)
	p-value*		0.004		<0.001		0.281		0.009	
Grade	1	83(49.4)	31(37.3)	52(62.7)	52(62.7)	31(37.3)	73(88.0)	10(12.0)	32(38.6)	51(61.4)
	2	85(50.6)	37(43.5)	48(56.5)	54(63.5)	31(36.5)	73(85.9)	12(14.1)	53(62.4)	32(37.6)
	p-value*		0.255		0.517		0.433		0.002	
Smoking state	No	128(76.2)	11(27.5)	29(72.5)	86(67.2)	42(32.8)	110(85.9)	18(14.1)	65(50.8)	63(49.2)
	Yes	40(23.8)	57(44.5)	71(55.5)	20(50.0)	20(50.0)	36(90.0)	49(10.0)	20(50.0)	20(50.0)
	p-value*		0.040		0.039		0.358		0.538	
Stress	feel	62(36.9)	24(38.7)	38(61.3)	43(69.4)	19(30.6)	51(82.3)	11(17.7)	32(51.6)	30(48.4)
	Nomally	91(54.2)	39(42.9)	52(57.1)	55(60.4)	36(39.6)	82(90.1)	9(9.9)	43(47.3)	48(52.77)
	Do not feel	15(8.9)	5(33.3)	10(66.7)	8(53.3)	7(46.7)	13(86.7)	2(13.3)	10(66.7)	5(33.3)
	p-value*		0.736		0.380		0.368		0.371	

\*Chi-square test

3.3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신념

Table 3과 같이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신념에서는 학년에서는 심각성( $p<0.05$ ), 유익성( $p<0.0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흡연에서는 유익성( $p<0.05$ )과 중요성( $p<0.05$ )에서, 스트레스에서는 심각성( $p<0.05$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3.4 구강건강증진행위와 구강건강신념의 관련성

구강건강증진행위와 구강건강신념간의 차이에서 치석제거경험은 감수성( $p<0.05$ ), 유익성( $p<0.001$ ), 중요성( $p<0.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정기적인 치과방문에서는 유익성( $p<0.05$ )과 중요성( $p<0.05$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구강관리용품 사용에서는 중요성

Table 3. The difference of subjective oral health belief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Susceptibility	Seriousness	Benefit	Saliency	Barrier
Gender	Male	35(20.8)	2.51±0.63	2.02±0.67	3.86±0.63	3.04±0.56	3.29±0.65
	Female	133(79.2)	2.53±0.73	2.00±0.66	4.02±0.54	3.16±0.51	3.33±0.76
	t or F (p-value)		-.117 (0.907)	.180 (0.857)	-1.547 (0.124)	-1.219 (0.225)	-.287 (0.775)
Grade	1	83(49.4)	2.44±0.72	1.88±0.69	3.81±0.55	3.06±0.52	3.32±0.71
	2	85(50.6)	2.61±0.69	2.13±0.59	4.16±0.53	3.20±0.52	3.33±0.76
	t or F (p-value)		-.1588 (0.114)	-2.546 (0.012)	-4.202 (<0.001)	-1.714 (0.088)	-0.089 (0.929)
Smoking state	No	128(76.2)	2.48±0.72	2.01±0.66	4.05±0.53	3.19±0.49	3.36±0.76
	Yes	40(23.8)	2.67±0.66	2.00±0.66	3.78±0.62	2.97±0.60	3.20±0.67
	t or F (p-value)		1.442 (0.151)	-.065 (0.948)	-2.786 (0.006)	-2.345 (0.020)	-1.161 (0.247)
Stress	feel	62(36.9)	23.61±0.69	2.02±0.68 <sup>a</sup>	3.94±0.53	3.13±0.58	3.19±0.71
	Nomally	91(54.2)	2.51±0.69	2.07±0.65 <sup>a</sup>	4.00±0.59	3.16±0.46	3.38±0.74
	Do not feel	15(8.9)	2.30±0.83	1.53±0.35 <sup>b</sup>	4.08±0.60	3.03±0.65	3.50±0.81
	t or F (p-value)		1.248 (0.290)	4.548 (0.012)	0.413 (0.662)	0.359 (0.699)	1.736 (0.179)

\*by independent t-test and one-way ANOVA

<sup>ab</sup> The same characters indicates no significant difference by post hoc Scheffe test

Table 4. Relevance of oral health improvement behavior and oral health beliefs

Characteristics	Scaling experience		p-value*	Regular dental visit		p-value*	Tooth brushing		p-value*	Use of auxiliary oral care products		p-value*
	Yes	No		Yes	No		Yes	No		Yes	No	
Susceptibility	2.40 ±0.71	2.62 ±0.69	0.049	2.51 ±0.69	2.54 ±0.74	0.850	2.54 ±0.70	2.46 ±0.75	0.646	2.59 ±0.70	2.47 ±0.71	0.270
Seriousness	2.00 ±0.70	2.01 ±0.63	0.955	1.98 ±0.64	2.05 ±0.69	0.472	2.0 ±0.651	1.94 ±0.71	0.611	2.08 ±0.64	1.93 ±0.67	0.148
Benefit	4.17 ±0.56	3.86 ±0.54	<0.001	4.09 ±0.54	3.80 ±0.57	0.001	3.99 ±0.56	3.99 ±0.59	0.969	4.06 ±0.52	3.92 ±0.60	0.111
Saliency	3.28 ±0.53	3.03 ±0.50	0.002	3.21 ±0.46	3.00 ±0.59	0.011	3.13 ±0.53	3.18 ±0.51	0.647	3.23 ±0.42	3.04 ±0.60	0.021
Barrier	3.45 ±0.81	3.24 ±0.67	0.063	3.37 ±0.74	3.24 ±0.73	0.250	3.30 ±0.75	3.46 ±0.68	0.343	3.36 ±0.71	3.29 ±0.77	0.542

\*by independent t-test

Table 5. Correlation between oral health beliefs

	Susceptibility	Seriousness	Benefit	Saliency	Barrier
Susceptibility	1				
Seriousness	0.630**	1			
Benefit	-.085	-.100	1		
Saliency	0.013	0.105	0.401**	1	
Barrier	-.367**	-.292**	0.140	0.003	1

\*\* $p<0.01$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 $p<0.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Table 4>.

### 3.5 구강건강신념 간의 상관관계

구강건강신념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감수성과 심각성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감수성과 장애성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심각성과 장애성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유익성과 중요성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Table 5>.

## 4. 고안

현대인의 건강에 대한 삶의 욕구는 날고 증가되고 있으며, 구강건강의 습관은 성인기에서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좌우하므로 대학생의 올바른 구강건강증진행위는 매우 중요하다[17]. 이시기에 구강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 치아우식병이나 치주병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18]. 이에 대학생들의 구강건강신념과 구강건강증진행위의 융합관계를 살펴보고 올바른 구강건강신념과 구강건강증진행위를 파악하여 구강보건 지식, 태도, 행동의 변화를 갖게 하여 일생동안 살아갈 때에 구강건강을 예방하고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구강보건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신념은 총 2.99점이었으며, 유익성이 3.99점으로 가장 높고, 심각성이 2.0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김 등[15]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전체적으로 구강건강신념이 3.61점으로 높았으며, 심각성이 2.9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박[2]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구강에 대한 감수성과 심각성에서는 3.0이하로 보통 이하였고, 유익성과 중요성에서는 보통이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증진행위는 정기적인 치과방문에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p<0.001$ ), 1학년보다 2학년이, 흡연을 하지 않는 학생이( $p<0.05$ ) 스트레스를 느끼는 편에서는 높게 나타났다. 치석제거 경험에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p<0.05$ ), 학년에서는 2학년이 스트레스는 보통에서 높게 나타났다. 칫솔질에서는 하루 3

회 이상 남학생이 높고, 여학생은 4회이상, 2학년의 경우 4회이상, 스트레스를 느끼는 편에서 4회이상 칫솔질을 하고 있었다. 구강관리용품 사용에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p<0.05$ ), 1학년보다 2학년이, 흡연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거의 느끼지 않음에서 높게 나타났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대체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구강건강증진행위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이[14]의 연구에서는 정기적인 치과방문에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유사한 결과를 보였지만,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 편에서 높은 결과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또한 흡연과 칫솔질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본 연구결과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S대학의 경우 1학년에 이어 2학년에서 좀 더 심화된 구강보건교육을 배우는 과정에서 응답한 결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구강보건교육으로 인해 자신의 구강상태를 알고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신념에서는 성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감수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19]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나 다소 차이가 보였다. 학년에서는 심각성( $p<0.05$ ), 유익성( $<0.0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흡연에서는 유익성( $p<0.05$ )과 중요성( $p<0.05$ )에서, 스트레스에서는 심각성( $p<0.05$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오 등[8]의 연구에서도 감수성이 높을 경우 치과이용횟수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정기적인 치과에 방문한 학생의 구강건강신념은 유익성( $p<0.05$ )과 중요성( $p<0.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지난 1년동안 치석제거경험에서는 감수성( $p<0.05$ ), 유익성( $p<0.001$ ), 중요성( $p<0.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와 이[14]의 연구에서는 장애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김과 이[7]에서는 유익성, 감수성, 장애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다르기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치석제거의 중요성을 알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치과를 방문한 자가 증가하는 추세가 영향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구강관리용품 사용에서는 중요성( $p<0.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구강검진과 계속관리 등이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으로 구강건강신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4]. 구강건강신념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감수성과 심각성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감수성과 장애성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심각성과 장애성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유익성과 중요성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

났다. 구강관리행위와 구강건강신념간의 상관성은 양의 관계로 감수성, 심각성, 장애성이 높거나 유익성이 높으면 칫솔질 빈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하였다[20,21].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G지역 S대학 학생 5개학과 1,2학년 특성화융복합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정하였기에 전체에게 적용하기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며, 향후 연구시에는 대상자를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융복합 수강생들에게 구강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과 특성에 맞게 적용하며, 자신의 구강건강상태를 알고 태도 및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성을 느끼며 대학내에 융복합 과목에 적절하게 맞는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 5. 결론

G지역 S대학교 융복합 과목을 수강한 학생 168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수업 후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동의한 학생에게 직접 서명 날인 후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1. 구강건강신념은 총 2.99점이었으며, 유익성이 3.99점으로 가장 높았고, 감수성 2.53점, 중요성 3.13점, 장애성 3.32점이었고, 심각성이 2.0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증진행위는 성별에서 정기적인 치과방문( $p<0.001$ ), 치석제거경험( $p<0.05$ ), 구강관리용품( $p<0.05$ ) 사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학년에서는 구강관리용품 사용( $p<0.05$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흡연에서는 정기적인 치과방문( $p<0.05$ ), 치석제거경험( $p<0.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3.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신념에서는 학년에서는 심각성( $p<0.05$ ), 유익성( $<0.0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흡연에서는 유익성( $p<0.05$ )과 중요성( $p<0.05$ )에서, 스트레스에서는 심각성( $p<0.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4. 구강건강증진행위와 구강건강신념간의 차이에서 치과방문은 유익성( $p<0.05$ )과 중요성( $p<0.05$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치석제거경험에서는 감수성( $p<0.05$ ), 유익성( $p<0.001$ ), 중요성( $p<0.05$ )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강위생용품 사용에서는 중요성( $p<0.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5. 구강건강신념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감수성과 심각성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감수성과 장애성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심각성과 장애성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유익성과 중요성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구강건강의 신념이 매우 중요하며, 올바른 구강건강신념을 갖을 수 있도록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을 배워나가고 행동과 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학내에서 구강보건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1] S. O. Lee & Y. J. Jang. (2016). Correlation among oral health behavior, oral health knowledge and dietary control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Dental Hygiene*, 16(5), 725-732. DOI: 10.13065/jksdh.2016.16.05.725
- [2] M. S. Park. (2001). The effect of oral health behavior by oral health belief of student in dental hygiene department of college student in Seoul.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11(2), 107-119.
- [3] D. Kushnir, S. P. Zusman & P. G. Robinson. (2004). Validation of a hebrew version of the oral health impact profile 14. *Journal Public Health Dentistry*, 64(2), 71-75. DOI:10.1111/j.1752-7325.2004.tb0.730.x
- [4] Y. E. Kim, Y. K. Chung & K. S. Kim. (2000). A study on the relations of health promoting daily life style and self-efficiency in boys' high. *Journal of Korean Society School Health*, 13(2), 241-259.
- [5] K. H. Lee & E. S. Jung. (2017). Factors affecting perception of oral health preven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6), 237-247.
- [6] S. J. Jang. (2016). Convergent relationship between functional oral health literacy, oral health knowledge and oral health behavior of som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7(26), 69-75. DOI:10.15207/JKCS.2016.7.2.069
- [7] S. M. Kim & H. S. Lee. (2015). Oral health belief and oral health behavior of taxi driver in Jeollabuk-do. *Journal of*

- Dental Hygiene Science*, 15(5), 542-50.  
DOI:10.17135/jdhs.2015.15.5.542
- [8] Y. B. Oh, H. S. Lee & S. N. Kim. (1994). Children's dental health behavior in relation to their mothers' socioeconomic factors and dental health beliefs. *Journal of Korean Academy Dental Health*, 18(1), 62-83.
- [9] B. J. Jang. (2008). Study on relation between dental health beliefs and dental health behavior in the high grade students of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8(3), 163-168.
- [10] H. S. Lee & G. S. Kim. (1999). Oral health behavior of economically active women in Chollabuck do republic of Korea:2. oral preventive behavior. *Journal of Korean Academy Dental Health*, 23(3), 287-99.
- [11] M. H. Park, M. S. Lee & H. S. Lee. (2011). The effects of oral health belief of elderly on oral health impact profile in Daegu, Gyeongbuk Region. *The Korean Academy of dental Technology*, 33(4), 391-402.
- [12] S. U. Yoon & S. J. Jang. (2016). Convergent relationship between oral health knowledge and oral health behavior of health-related and health-unrelated majors university students in some area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7(1), 97-104.  
DOI : 10.15207/JKCS.2016.7.1.097
- [13] H. M. Park. (2016). Effect of oral health belief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parents' oral health behavior on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 among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10(2), 133-144.  
DOI : 10.12811/kshsm.2016.10.2.133
- [14] B. R. Lee & Y. H. Lee. (2017). Oral health beliefs and oral health behaviors related factors of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Dental Hygiene*, 17(3), 431-440.  
DOI : 10.13065/jksdh.2017.17.03.431
- [15] M. N. Kim, D. S. Lim, M. H. Kim, A. R. Kim, S. I. Kim & Y. S. Ahn. (2015). Effect of health belief factor on oral health related behavior in pregnant woman.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15(2), 129-37.  
DOI : 10.17135/jdhs.2015.15.2.129
- [16] S. S. Kegeles.(1963). Why people seek dental care: A test of a conceptual formulation. *Journal of Health Hum Behav*, 4, 166-73.
- [17] M. K. Jeong, Y. M. Kim & S. Y. Hong. (2011). A study on the oral health behavior of some dental hygiene students and other majors. *Journal of Korean Society Dental Hygiene*, 11(5), 615-627.
- [18] S. J. Jang. (2016). Convergent relationship between functional oral health literacy, oral health knowledge and oral health behavior of som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27(2), 69-75.  
DOI : 10.15207/JKCS.2016
- [19] M. G. Ji. (2008). A study on middle school students' oral health belief and oral health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Dental Hygiene Education*, 8(4), 165-180.
- [20] H. S. Lee. (1996). Association between dental health belief and dental health-related behavior in mothers and children. *Journal of Korean Academy Dental Health*, 20(1), 11-30.
- [21] H. J. Lim, H. J. Km & Y. S. Ahn. (2015). The impact of health belief model in th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on oral health behaviors. *Journal of Korean Society Dental Hygiene*, 15(1), 111-118.  
DOI : 10.13065/jksdh.2015.15.01.111

임 선 아(Sun-A Lim)

[정회원]



- 2006년 2월 : 조선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치의학박사)
- 2005년 3월 ~ 2010년 2월 : 전남 과학대학교 치위생과 조교수
- 2010년 3월 ~ 현재 : 송원대학교 치위생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구강보건학, 예방, 보건관리 융합
- E-Mail : givesuna@nate.com